

주님의 품 안에서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심홍보

머리말

예비신자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 신자들에게서도 가끔 “하느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감이 안 와요.” 등등의 하소연을 접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감성적인 느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라도 가야하겠지만, 주 하느님과 전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무미건조하고 맹송맹송한 신앙생활이 고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러다가 신앙생활을 진정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게다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평신도 사도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봉사활동은 물론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봉사자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갈등으로 봉사와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그만두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커다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더욱 더 안쓰럽습니다. 더군다나 봉사활동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마저도 시들어 버리고 잠시라고는 하지만 성당마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바라볼 때면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복잡해집니다. 자신의 탓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악의 심술 때문에 좋은 뜻과 열정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며 변절해서 결국 악에게 빼앗기고 마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하면, 직장에서 일하며 직장 복음화를 위해,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며 가정 복음화를 위해,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어느새 스며드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한 부담 등이 스트레스와 짐으로 등장하여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뜻을 펼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은 있다가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충분히 풍요히 채우고자 하는 갈증과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처입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을 간직하도록, 목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샘솟는 영적인 물을 삶과 활동에 채울 수 있도록 평신도 사도들을 위한 영성 차원의 양성과정을 기획했습니다. 동시에 성직자들과 일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듯한 영신수련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일반 신자들에게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하던 몇 년의 고민도 한 몫을 더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획 과정에서 수도자들이 서원 이후의 지속적인 양성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도회원들은 지도신부의 개인별 면담에 의한 영신지도가 없더라도, 회원들끼리 성경 묵상과 나눔을 통해 각자의 묵상과 경험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 안에 숨어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고, 공동식별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눔의 풍요함과 은총을 깨우치게 되었다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격려와 기대를 표해주었습니다. 수도회원들의 이러한 요청들에 힘입어 오랫동안 구상하고 망설이던 이 프로그램을 ‘공동체 묵상나눔과 공동식별을 통한 사도직 영신수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이 프로그램의 양성과정을 따라 관상기도를 할 경우에는 영성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규칙적이고 구체적인 영성지도를 받아가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양성과정은 구세사를 6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2010년 가톨릭 교리 신학원에서 처음 구상을 시작할 때는 24주에 걸쳐 매일 기도하고 묵상, 관상하고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꾸몄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 5일 묵상을 월 5주 묵상으로 삼아 24주를 24개월로 확장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영신 성숙이 되겠느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간 역사를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하고자 애쓰시는 구세사(救世史)로 삼습니다. 그리고 구세사를 깊게 바라보며 묵상하면 하느님께서 성경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 성경기사들이 하느님께서 과거의 인간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흔적으로 그치지 않고, 하느님께서 그 성경기사들을 읽는 오늘의 나를 부르고 계시며, 내가 그 부르심을 내 삶의 역사와 관련하여 눈뜨게 되고 응답할 때, 주님께서 오늘의 나를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첫 주제 ‘세상의 어둠과 아픔 속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예기치 않았던 갈등과 어려움에 관한 고난의 현장과 풀리지 않는 신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인 죄와 악,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서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길을 건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 ‘희망의 서곡’은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를 겪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고통을 통해 자비로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희망의 목소리를 듣고 가난하고 겸손한 탄생으로 천지개벽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과 세례로 공생황을 시작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 ‘말씀 선포’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설교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뿍 담긴 하느님 나라의 길과 그 길에서 얻는 기쁨과 평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눈뜨고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주제, ‘구원 행적’은 말씀 선포로 시작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믿게 하시고, 병자와 죽은 이들의 몸을 고치시고 되살리시는 치유 기적을 통해 전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주시며,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을 따라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주님의 이루심’은 주님께서 말씀과 행적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몸소 예수님의 삶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과 애착과 의지에서 죽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힘으로 교회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희망의 성취’는 교회의 성사를 통해 성사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펼치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사랑의 일치와 겸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며 희망찬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구세사를 되짚어 가며, 주님과 의 관계를 맺어가고 깊어지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샘솟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더욱 더 커

다란 열망과 열정을 간직하며 성숙해짐으로써 악의 심술에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강건하고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실수하고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영성성숙의 양성과정이지만, 또 다소 길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택하지 않는 길 이기에 좁은 길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견고자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께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는 하느님의 얼굴을 뵙도록 해 주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가득 안겨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이 과정을 밟는 여러분의 영을 몸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에
천주교 수색 예수성심 성당에서
심홍보 신부

주님의 품 안에서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주제

월 별 주 제	주 별 주 제	
주님과 정쌍기(기도 안내)	I	주님 만나기(기도 일반)
	II	주님 모시기(성체조배 - 하느님 현존 체험)
	III	주님 생각하기(묵상기도)
	IV	주님 바라보기(관상기도)
I 세상의 어둠과 아픔 속에서	01	고난의 현장-원죄와 사회악
	02	풀리지 않는 신비-창조의 신비
	03	포기할 수 없는 매력-죄와 악
	04	예언-경고와 미래의 길
II 희망의 서곡	05	고통의 진실-구원에 이르는 고통
	06	희망의 목소리-하느님의 자비
	07	천지개벽-가난과 겸손한 탄생
	08	주님의 세례-공생활의 시작
III 말씀 선포	09	희년 선포-사도직 선포
	10	주님의 부르심-응답
	11	산상설교
	12	하느님 나라
IV 구원 행적	13	치유와 구원
	14	회개와 용서
	15	생명의 빵
	16	주님의 기도
V 주님의 이루심	17	수난과 죽으심
	18	부활과 승천
	19	성령강림
	20	교회
VI 희망의 성취를 향하여	21	성사
	22	미래에 대한 희망
	23	사랑의 일치와 겸손
	24	희망찬 거룩한 생활

주님의 품 안에서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추천의 말
머리말

주님과 정쌍기(기도 안내)

- I. 주님 만나기(기도 일반)
- II. 주님 모시기(성체조배 - 하느님 현존 체험)
- III. 주님 생각하기(묵상기도)
- IV. 주님 바라보기(관상기도)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I 세상의 어둠과 아픔 속에서

01 내 백성이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고난의 현장-원죄와 사회악)

- 011 하느님의 현현과 모세의 소명(탈출 3,1-12.14)
- 012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찾으신다(이사 43,1-7)
- 013 나를 살살이 아시는 주님(시편 139)
- 014 안식을 주셨다(마태 11,28-30)
- 014-1 언제나 기뻐하십시오(1테살 5,16-28)
- 015 고난의 현장-원죄와 사회악 종합

02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느님이십니다(풀리지 않는 신비-창조의 신비)

- 021 창조1-자연창조(창세 1,1-2,4-)
- 022 창조2-인간창조(창세 2,4-9.15-25)
- 023 야곱과 에사우(창세 28,10-22(25,19-33,20))
- 024 요셉이야기(창세 37,1-4.27.36; 45,3-15(37,1-45,15))
- 024-1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로마 12,1-2)

025 풀리지 않는 신비-창조의 신비 종합

03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포기할 수 없는 매력-죄와 악)

031 원죄-인간의 죄I: 하나님께 대한 죄(창세 2,15-17; 3,4-19)

032 카인과 아벨-인간의 죄II: 이웃에 대한 죄(창세 4,1-16)

033 인류의 타락-공동체의 죄(창세 6,5-9,29; 11,1-9)

034 율법과 죄와 죽음(로마 7,7-25)

034-1 주님의 재림(2베드 3,8-18)

035 포기할 수 없는 매력-죄와 악 종합

04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예언-경고와 미래의 길)

041 예언자 나단(2사무 12,1-14)

042 심판날이 다가 왔다(아모 5,16-27)

043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요엘 1,4.11.15; 2,12-17)

044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제 36,24-28(36,22-32))

044-1 사랑과 믿음(1요한 4,7-21)

045 예언-경고와 미래의 길 종합

II 희망의 서곡

05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고통의 진실-구원에 이르는 고통)

051 내가 태어난 날이여(욘 1; 2; 3; 4; 6; 7; 38; 40; 42)

052 세상 만사 헛되다(전도 1, 2; 3,1-22)

053 내가 태어난 날이여(요나 4,1-11)

054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시편 22)

054-1 고난을 겪으며 순종(히브 5,1-10)

055 고통의 진실-구원에 이르는 고통 종합

06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희망의 목소리-하느님의 자비)

061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이사 42,1-9)

062 임마누엘(이사 7,14; 미가 6,8; 7,18-20)

063 유다에게 구원을(나훔 1,12-2,3; 하바 2,1-6)

064 선한 목자(자카 13,1-9; 말라 3,1-5)

064-1 세례자 요한의 증언(요한 1,19-27)

065 희망의 목소리-하느님의 자비 종합

07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천지개벽-가난과 겸손한 탄생)

- 071 예수님 탄생 예고(루카 1,26-38)
- 072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과 노래(루카 1,39-56)
- 073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마태 1,18-25-)
- 074 예수님의 탄생(루카 2,1-7)
- 074-1 말씀(로고스) 찬가(요한 1,1-18)
- 075 천지개벽-가난과 겸손한 탄생 종합

08 내 사랑하는 아들(주님의 세례-공생활의 시작)

- 081 목자들의 방문(루카 2,8-20)
- 082 동방박사들의 방문(마태 2,1-12)
- 083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 봉헌과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루카 2,21-39)
- 084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루카 2,40-52)
- 084-1 세례를 받으시다(마태 3,13-17)
- 085 주님의 세례-공생활의 시작 종합

III 말씀 선포

0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희년 선포-사도직 선포)

- 091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태 4,1-11)
- 092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루카 4,16-21)
- 093 단식과 안식일의 주인(마르 2,18-28)
- 094 출세와 섬김(마르 10,35-45)
- 094-1 가장 큰 계명(마르 12,28-34)
- 095 희년 선포-사도직 선포 종합

10 나를 따르라(주님의 부르심-응답)

- 101 어부들을 부르시다(루카 5,1-11)
- 102 첫 제자들(요한 1,35-42)
- 103 레위를 부르심(마태 9,9-13)
- 104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요한 1,43-51)
- 104-1 예수님을 따르려면(루카 9,23-27.57-62)
- 105 주님의 부르심-응답 종합

11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산상설교)

- 111 참행복(마태 5,3-12)
- 112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 5,13-20)
- 113 화해하여라(마태 5,21-32)
- 114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33-48)
- 114-1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단식(마태 6,1-18)
- 115 산상설교 종합

12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하느님 나라)

- 121 하느님이나, 재물이나(마태 6,19-24)
- 122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마태 6,25-34)
- 123 보물과 그물의 비유(마태 13,44-53)
- 124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르 4,1-9; 13-20)
- 124-1 씨앗의 비유(마르 4,26-32)
- 125 하느님 나라 종합

IV 구원 행적

13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치유와 구원)

- 131 중풍 병자 고치심(마르 2,1-12)
- 132 아이로의 딸과 하혈하는 부인 고치심(마르 6,21-43)
- 133 벳자타 못 가 병자 고치심(요한 5,1-18(47))
- 134 눈먼 사람 고치심(요한 9,1-41)
- 134-1 라자로를 살리심(요한 11,1-44(57))
- 135 치유와 구원 종합

14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회개와 용서)

- 141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심(루카 7,36-50)
- 142 되찾은 양과 은전의 비유(루카 15,1,-10)
- 143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
- 144 예수님과 자캐오(루카 19,1-10)
- 144-1 간음하다 잡힌 여자(요한 8,1-11(20))
- 145 회개와 용서 종합

15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생명의 빵)

- 151 오천 명을 먹이시다(요한 6,1-15)
- 152 물 위를 걸으시다(요한 6,16-21; 마태 14,22-33)
- 153 생명의 빵(요한 6,22-59)
- 154 영원한 생명의 말씀(요한 6,60-71)
- 154-1 성찬례 제정(마태 26,26-29)
- 155 생명의 빵 종합

16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주님의 기도)

- 161 주님의 기도(마태 6,5-15)
- 162 청하여라(루카 11,5-9)
- 163 겸손하게 섬겨라(루카 17,4-10)
- 164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루카 18,1-27)
- 164-1 대사제의 기도(요한 17,1-26)
- 165 주님의 기도 종합

V 주님의 이루심

17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수난과 죽으심)

- 171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태 16,13-23)
- 172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마르 14,32-42)
- 173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잡히신 예수님(루카 22,1-71)
- 174 수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23,1-56)
- 174-1 고난 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이사 52,13-53,12)
- 175 수난과 죽으심 종합

18 평안하나(부활과 승천)

- 181 예수님의 부활(마태 28,1-10)
- 182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루카 24,13-35)
- 183 예수님과 토마스(요한 20,19-29)
- 184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요한 21,1-23)
- 184-1 제자들의 사명과 주님의 승천(마태 28,18-20; 사도 1,8-11)
- 185 부활과 승천 종합

19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성령강림)

- 191 기도하는 사도들과 마티아를 사도로 뽑음(사도 1,12-26)

- 192 성령강림(사도 2,1-13)
- 193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사도 2,14-36)
- 194 첫 신자 공동체 생활(2,42-47; 4,32-35)
- 194-1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3,1-10(26))
- 195 성령강림 종합

20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교회)

- 201 사도들의 기적(사도 5,12-16(42))
- 202 일곱 부제 선발(사도 6,1-7(60))
- 203 사울의 회심(사도 9,1-19(31))
- 204 선교사로 파견된 바르나바와 사울(13,1-3(52))
- 204-1 예루살렘 사도회의(사도 15,1-21(35))
- 205 교회 종합

VI 희망의 실현을 향하여

21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성사)

- 211 세례성사(요한 3,1-21); 견진성사(사도 8,(1)14-17(25))
- 212 성체성사(요한 6,22-59); 고해성사(마태 16,13-20; 18,15-18)
- 213 성품성사(요한 21,15-19(23)); 혼인성사(마태 19,1-9(12))
- 214 병자성사(마르 6,7-13)
- 214-1 착한 사마리아 사람(루카 10,25-37)
- 215 성사 종합

22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미래에 대한 희망)

- 221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로마 5,1-21)
- 222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로마 6,1-23)
- 223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로마 7,1-25)
- 224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로마 8,1-39)
- 224-1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로마 12,3-21)
- 225 미래에 대한 희망 종합

23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사랑의 일치와 겸손)

- 231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1코린 12,1-31)
- 232 사랑(1코린 13,1-13)

233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갈라 5,1-26)

23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페 2,1-22)

234-1 일치와 겸손(필리 2,1-11(18))

235 사랑의 일치와 겸손 종합

24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희망찬 거룩한 생활)

241 그리스도 찬가(콜로 1,9-29)

242 시련과 유혹, 믿음과 실천(야고 1,12-18; 3,14-26)

243 희망에 대한 감사(1베드 1,3-25)

244 사랑의 뿌리인 믿음(1요한 5,1-12(21))

244-1 새 하늘과 새 땅(요한 묵시록 21,1-27)

245 희망찬 거룩한 생활 종합

부 록

1

2

3

주님과 정 쌓기 기도 안내

- I. 주님 만나기(기도일반)
- II. 주님 모시기(성체조배 - 하느님 현존 체험)
- III. 주님 생각하기(묵상기도)
- IV. 주님 바라보기(관상기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 01세상의 어둠과 아픔 속에서

심홍보

I 세상의 어둠과 이쁨 속에서

01 내 백성이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다(고난의 현장-원죄와 사회악)

- 011 하나님의 현현과 모세의 소명(탈출 3,1-12.14)
- 012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찾으신다(이사 43,1-7)
- 013 나를 살살이 아시는 주님(시편 139)
- 014 멍에를 메어라(마태 11,28-30)
- 014-1 언제나 기뻐하십시오(1테살 5,16-28)
- 015 고난의 현장-원죄와 사회악 종합

02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풀리지 않는 신비-창조의 신비)

- 021 창조1-자연창조(창세 1,1-2,4-)
- 022 창조2-인간창조(창세 2,4-9.15-25)
- 023 야곱과 에사우(창세 28,10-22(25,19-33,20))
- 024 요셉이야기(창세 37,1-4.27.36; 45,3-15(37,1-45,15))
- 024-1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로마 12,1-2)
- 025 풀리지 않는 신비-창조의 신비 종합

03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포기할 수 없는 매력-죄와 악)

- 031 원죄-인간의 죄I: 하나님께 대한 죄(창세 2,15-17; 3,4-19)
- 032 카인과 아벨-인간의 죄II: 이웃에 대한 죄(창세 4,1-16)
- 033 인류의 타락-공동체의 죄(창세 6,5-9,29; 11,1-9)
- 034 율법과 죄와 죽음(로마 7,7-25)
- 034-1 주님의 재림(2베드 3,8-18)
- 035 포기할 수 없는 매력-죄와 악 종합

04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예언-경고와 미래의 길)

- 041 예언자 나단(2사무 12,1-14)
- 042 심판날이 다가 왔다(아모 5,16-27)
- 043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요엘 1,4.11.15; 2,12-17)
- 044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제 36,24-28(36,22-32))
- 044-1 사랑과 믿음(1요한 4,7-21)
- 045 예언-경고와 미래의 길 종합

01 내 백성이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고난의 현장-원죄와 사회악)

011 하느님의 현현과 모세의 소명(탈출 3,1-14)

성경소구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다(탈출 3,1-12.14)

3¹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다. 2²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³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4⁴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6⁶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7⁷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8⁸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9⁹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10¹⁰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 11¹¹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12¹²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14¹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묵상안내

살면서 왠지 모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거친 세상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부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 홀로 내 힘만으로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며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중에 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모세는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겪으며,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신기하거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 때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그 때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하셨는지도 되새겨 봅시다.

3. 내가 주님을 체험한 첫 사건을 되새기면서 오늘 그 사건과 그 체험을 어떻게 다른 이웃에게 적용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노트

012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찾으신다(이사 43,1-7)

성경소구 이스라엘의 구원(이사 43,1-7)

43 ¹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²네가 물 한가운대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대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³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⁴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⁵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 오리라.

⁶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 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너라.

⁷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아껴주고 계시며 보듬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봅시다.

묵상요점

1. 위 하느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까?
2. 내 생애 가장 기뻐던, 슬펐던 순간이나 추억이 있다면?
3. 주 하느님께서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생애의 기쁘고 슬펐던 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느끼십니까?

묵상노트

성경소구 나를 살살이 아시는 주님(시편 139,1-18. 23-24)

139 ¹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피보시어 아십니다.

²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³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⁴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⁵뒤에서도 앞에서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⁶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⁷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⁸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⁹제가 새벽놀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¹⁰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¹¹“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¹²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¹³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¹⁴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¹⁵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¹⁶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¹⁷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¹⁸세어 보자니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달았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²³하느님, 저를 살피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²⁴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잠을 자거나 숨을 쉬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는 내가 죄악에 사로잡혀 헤맬 때도 나와 함께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 하느님의 사랑과 안배하심을 느껴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 지난 생애 중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 때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도 되새겨 봅시다.
3.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되새겨 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묵상노트

014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30)

성경소구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30)

11 ²⁸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³⁰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묵상안내

하루를 마칠 때마다, 무엇인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지친 나를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주 하느님은 우리에게 집과 같은 분이고, 어머니 같은 분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모든 피로와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것저것을 달라고 청하거나, 고민스럽고 해결해야 할 사건들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 봅시다. 무엇을 더 주지 않아도, 무엇을 새로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처럼, 함께 일해서 좋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 안겨 봅시다.
3.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안겨있던 10여개 월처럼, 어머니 품에서 아무런 결핍이나 걱정도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어릴 때 그 순간들처럼, 주님 품 안에 안겨 평화의 안식을 누리봅시다.

묵상노트

014-1 언제나 기뻐하십시오(1테살 5,16-28)

성경소구 언제나 기뻐하십시오(1테살 5,16-28)

5 ¹⁶언제나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¹⁹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²⁰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²¹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²²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²³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²⁴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²⁵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²⁶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²⁷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십시오.

²⁸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가끔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겹고 손해보는 일 같은 사건이나 상황도 실은 주 하느님의 은총의 섭리와 안배라고 받아들이며 오늘을 이겨 나갑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도 되새겨 봅시다.
3.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주 하느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겨 평안한 위로를 받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묵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02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느님이십니다(폴리지 않는 신비-창조의 신비)

021 창조1-자연창조(창세 1,1-2,4-)

성경소구 천지 창조(창세 1,1-2,4-)

1¹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²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³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⁴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⁵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⁶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⁷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⁸하느님께서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⁹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⁰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¹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²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³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¹⁴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¹⁵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⁶하느님께서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¹⁷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¹⁸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⁹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²⁰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²¹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²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²³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

²⁴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²⁵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짐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⁶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²⁷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²⁸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²⁹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³⁰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³¹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옛날이 지났다.

2 ¹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²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³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⁴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묵상안내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 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의 우리가 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 내시는 모습을 기도 중에 바라봅시다.
3.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따로 만드시고 각각 사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아버지 어머니의 선물로 잉태시켜 주시는 주 하느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장점과 소질을 주시면서 세상에 내 보내셨는지 기도 중에 바라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에덴동산(창세 2,4-9.15-25)

2⁴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⁵땅에는 아직 들의 덩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⁶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⁷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⁸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⁹주 하느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¹⁰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¹¹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¹²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브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¹³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¹⁴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¹⁵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¹⁶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¹⁷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¹⁸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¹⁹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²⁰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²¹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²²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²³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²⁴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²⁵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지어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 하느님의 사랑과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주 하느님을 대신하여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피조물을 데려다 주시면서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나 장만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기대를 합니까?
3.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게서 나왔다고 하면서 반겼다고 합니다. 나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노트

성경소구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창세 28,10-22)

28 ¹⁰야곱은 브에르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¹¹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¹²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¹³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사악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¹⁴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¹⁵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¹⁶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¹⁷두려움에 싸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¹⁸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¹⁹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²⁰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²¹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²²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이해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고 나쁨을 단순한 윤리적인 판단으로 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때마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눈을 느껴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야곱은 비록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주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 야곱은 자신과 함께해주시는 주 하느님을 뵈옵고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을 봉헌하는 서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시는 주 하느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서원을 발하렵니까?

묵상노트

성경소구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다(창세 37,1-4.27.36; 45,3-15)

37 ¹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살이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²……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³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⁴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낼 수가 없었다. …… ²⁷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붙이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 ³⁶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45 ³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⁴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⁵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⁶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⁷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⁸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⁹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¹⁰아버지께서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 떼와 소 떼 등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¹¹기근이 아직도 다섯 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¹²지금 형님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우 벤야민과 함께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¹³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그 밖에 무엇이든 본 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¹⁴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벤야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벤야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¹⁵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목상안내

요셉은 자신의 찌그러지고 왜곡된 인생을 통해 자기 민족을 향한 주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파악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섭섭함과 안타까움에 빠져 부정적인 인간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사업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와 안배를 바라봅시다.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의 과거 중에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아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있었는지요? 있다면,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지금 와서 그 때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내가 왜 그 사건과 상황이나 사람을 겪도록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목상노트

024-1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로마 12,1-2)

성경소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로마 12, 1-2).

12 ¹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²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 펼쳐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길에 들어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깁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도 간직해 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가 요즘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사건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과 상황이나 사람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3. 하느님께서 왜 내가 그 사건과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역량에 맞추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내 생각해 보고 실제로 실현해 봅시다.

묵상노트

목상요점

1. 우리를 지어내시고 함께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나를 세상에 내시며, 내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왔는지 자리매김 해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목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목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목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목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03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포기할 수 없는 매력-죄와 악)

031 원죄-인간의 죄: 하느님께 대한 죄(창세 2,15-3,24)

성경소구 인간의 죄와 벌(창세 2,15-17; 3,4-24)

2 ¹⁵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¹⁶그리고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¹⁷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3 ⁴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⁵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⁶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⁷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령이를 만들어 입었다. ⁸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⁹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⁰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¹¹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¹²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¹³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¹⁴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¹⁵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¹⁶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¹⁷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¹⁸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¹⁹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²⁰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²¹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²²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 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²³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 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²⁴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목상안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취하려 하고, 지금보다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 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다른 더 나아보이는 해결책을 택할 때, 우리는 가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게 되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지게 되며,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형평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하느님과 같이 되어서 하느님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만불손한 마음을 바라봅시다.
3.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4. 죄로 인해 자승자박처럼 축복에서 저주 상태로 처해지는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해 봅시다.
5. 주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유한과 불완전한 세상에 살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목상노트

성경소구 카인과 아벨(창세 4,1-16)

4 ¹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 ²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부치는 농부가 되었다. ³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⁴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만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⁵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⁶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⁷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⁸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어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⁹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¹⁰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¹¹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¹²네가 땅을 부쳐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¹³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큼니다. ¹⁴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¹⁵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갑절로 양값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¹⁶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 나와 에덴의 동쪽 못 땅에 살았다.

묵상안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홀로는 그냥 그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스스로의 행복이 깨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다른 어느 누구와 비교하여 보시지 않고 나를 나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나 스스로도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되지 않아도 성실하고 충실하여 그 자체로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분을 봉헌합시다.
3.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분을 봉헌합시다.
4. 주 하느님께 나를 봉헌합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인류의 타락(창세 6,5-6.13-14; 7,13.17; 8,15-17.20-22; 9,1-2; 11,1-9)

6 ⁵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한 것을 보시고, ⁶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¹³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¹⁴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7 ¹³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¹⁷땅에 사십 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8 ¹⁵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¹⁶“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¹⁷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²⁰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²¹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²²땅이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9 ¹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²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11 ¹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²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아르 지방에서 한 별관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³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 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⁴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⁵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⁶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겨례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⁷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⁸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⁹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묵상안내

“좋은 일을 하자는 데는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 아주 오래 걸리고 외롭고 힘겹지만, 나쁜 일을 하자는 데는 왜 그렇게 많은 이가 쉽게 동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올곧게 살며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든든한 성이지만, 한 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삶은 신기루처럼 보이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불경한 탐욕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인간 스스로 안분지족하여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주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는 노아를 바라봅시다.
3. 노아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는 주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 (4. 신아르(바벨) 지방의 속 썩이는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주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5. 주 하느님 앞에 서있는 내 모습도 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율법과 죄와 죽음(로마 7,7-25)

7 ⁷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⁸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⁹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¹⁰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¹¹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¹²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¹³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⁴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¹⁵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¹⁶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¹⁷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¹⁸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¹⁹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²⁰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²¹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²²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²³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²⁴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²⁵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묵상안내

인간의 나약하고 부족한 본성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간파하는 바오로 사도의 뼈아픈 통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악의 준동도 기억합니다.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주 하느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몸부림치듯 청하는 바오로 사도의 이해와 간구를 뼈저리게 동감하면서 주 하느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습니까?
3. 죄악에 잡혀있는 나를 구하러 오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주님의 재림(2베드 3,8-18)

3⁸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⁹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¹⁰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¹¹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¹²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¹³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¹⁴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¹⁵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 보낸 바와 같습니다. ¹⁶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곡해하듯이 그것들도 곡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¹⁷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¹⁸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앎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묵상안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도 그 올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오지 못한다고 혼내고 벌주기 보다는 실수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지극한 주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물가에 내 놓은 자식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느껴봅시다.

3. 우리에게 거듭 재생의 기회를 주시며,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과 힘을 내려주시는 주
하느님을 만나봅시다.

묵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를 잡고 있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려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내가 자주 빠지는 죄악의 유혹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런 나를 구하시고자 하는 주 하느님께 나를 맡겨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04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예언-경고와 미래의 길)

041 예언자 나단(2사무 12,1-14)

성경소구 나단이 다윗을 꾸짖다(2사무 12,1-14)

12 ¹주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²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³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⁴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⁵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 ⁶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갑절로 갚아야 한다.” ⁷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⁸나는 너에게 네 주군의 집안을, 또 네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⁹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¹⁰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 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¹¹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할 것이다. ¹²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¹³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¹⁴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묵상안내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는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그 현장에 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 부하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탄 예언자가 나타나 부자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수많은 양들은 그냥 두고 가난한 이의 양을 잡았다는 비유를 듭니다. 다윗 왕이 그 부당함을 언급하자, 나탄 예언자가 지적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엔 꽤 오랜 시가니 걸립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다윗은 바세바와 부정을 저질러 얻은 자기 첫 아들을 결국 잃고 맙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예언자 나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3. 내 추악한 죄의 모습을 예언자의 눈에서 바라봅시다.
4. 내 죄를 용서해주는 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느껴봅시다.

묵상노트

042 심판날이 다가 왔다(아모 5,16-27)

성경소구 주님의 날(아모 5,16-27)

5 ¹⁶그러므로 주님께서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라.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고

곡꾼들을 불러 곡하게 하리라.

¹⁷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¹⁸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¹⁹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²⁰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²¹“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²²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²³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²⁴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²⁵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사십 년 동안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²⁶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곳 상과
너희 별 신 케완 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²⁷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들을 지구인 서로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나누는 것은 자비로 해결되지만, 정말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심각한 결핍을 누리게 된다면 단순한 자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살려면 나눔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의 바탕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 하느님께서 오늘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정의를 목말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3. 주님께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길을 걷고 정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묵상노트

043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요엘 1,4-2,17)

성경소구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요엘 1,4.11.15; 2,12-17)

1 ⁴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 버렸다.

¹¹밀과 보리를 생각하며
농부들아, 질겁하여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울부짖어라.
들의 수확이 다 망가졌다.

¹⁵아, 그날! 정녕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2 ¹²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¹³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¹⁴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 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 줄지
누가 아느냐?

¹⁵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¹⁶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¹⁷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셋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묵상안내

요엘 예언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회개를 요구하는 꾸지람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를 안아주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3. 주님의 품에 안겨 시름과 근심을 덜고 편안하게 쉬어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제 36,24-28)

36 ²⁴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²⁵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²⁶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²⁷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²⁸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서는 속 썩이는 우리를 전혀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안쓰럽게 보시고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죄악과 과오와 묵은 때들을 몽땅 다 바꿔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설레고 희망 가득하게 해줍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님 사랑의 영이 우리의 죄악과 때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껴봅시다.
3.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의 영을 느껴봅시다.
4.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사랑과 믿음(1요한 4,7-21)

4 ⁷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⁸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⁹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¹⁰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¹¹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¹²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¹³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¹⁴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¹⁵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¹⁶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¹⁷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¹⁸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¹⁹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²⁰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²¹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안내

우리는 가끔 살면서 영적, 정신적, 물질적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잘 안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주 하느님마저 원망하고 맙니다. 그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해결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다른 한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정 주님

게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기억해 내고 과연 우리가 더 달라고 또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있는지 되새겨 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 죄값으로 삼고 우리를 살리게 할 정도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 희생해 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3.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이어서 그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평화와 위로를 누리봅시다.
4. 우리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커다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금 내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봅시다.

묵상노트

목상요점

1. 예언자들을 통해 복음이 펼쳐주는 거룩한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오늘 예언서 편을 종합하면서 그동안 들려왔던 하느님의 음성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나(와 내가 사는 세상)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잠겨 위로를 받고 평화 속에서 새 희망의 빛을 받읍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목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목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목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목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